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와 상담적 개입방안

고 기 홍*

〈목 차〉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4.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상담적 개입방안
- 2.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와 문제점
- 5. 결론 및 요약
 - 참고 문헌
- 3.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의 원인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학업중단 청소년이란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기 이전에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을 말한다. 비슷한 의미로 중퇴, 중도탈락, 중도포기, 학업포기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권현진, 1997; Rumberger, 1990; Ensminger & Slusarcick, 1992).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15여 년 동안 매년 2% 전후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손승영, 1995; 박영숙, 1999; 조아미, 2001). 이는 누적비율로 보면 중학교에 입학한 청소년 100명중에 12명 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최근에는 잠재적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소수의 부적응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조차도 뚜렷한 이유 없이 등교거부나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은 2000년도의 OECD 28개국 평균이 13%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 학업중단 청소

^{*}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 부장 제주대학교 갓사

년이 많은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학벌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비록 적은 숫자라고 해도 외국과는 달리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가족, 또래, 학교 및 사회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업중단은 청소년 개인에게 삶의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습득이나 기회의 상실, 미래의 직업적 부적응 등의 사회적 문제를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권현진, 1997; 정지인, 1997; Rumberger, 1987). 또한 학업중단은 개인의 심리나 육체적 문제의 간접적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가족갈등, 다른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비행이나 사회적 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Walker, 1998; 김경식, 1997b; 박영숙, 1999).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직·간접적인 복지비용의 증가를 불러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는 결국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권현진, 1997; 정지인, 1997; Rumberger, 1987).

최근에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표갑수, 1993; 송광성 외, 1993; 이숙영 외, 1993; 박수민, 1997; 유성경과 이소래, 1998; 이경열, 1999). 그러나 제시된 대안들은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천 가능한 대처방안 수립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연구들이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의 대안으로 상담을 제시하고 있지만(이소영, 2000; 김경식, 1997a; 표갑수, 1992; 박영숙, 1999) 이 역시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보다 실천적인 상담 개입방안 수립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상담적 개입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먼저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원인과 대처방안을 살펴보고 나서, 이를 토대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상담적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와 문제점

1)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

교육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에 학업을 중단한 중고생들은 모두 71,233여명이었고, 여기에 초등학생 1,508명까지 포함하면 72,741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아미, 2001). 이들중에 이민, 유학,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2만 정도를 제외하면 5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부적응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중고생의 학업중단 비율은 큰 변화 없이 지난 15여 년 동안 2% 전후를 유지

해오고 있다(손승영, 1995; 박영숙, 1999; 조아미, 2001). 단지 중학교와 일반고의 비율은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다소 감소한 반면, 실업고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조아미, 2001). 이를 누적 비율로 보면 중학교에 입학한 청소년 100명중에 12정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도중에 학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

학교부적응 학생들은 현재 시점에서 학업을 중단하지는 않았더라도 미래에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박영숙, 1999). 이 때문에 Rovello(1965), Dorn(1996), 조혜정(1997), 박영숙(1999), 김영한(2000) 등은 사실상 학업은 포기하였으나 등교는 하고 있는 학업의욕 상실 학생, 결석 및 등교거부 학생과 같은 학교부적응 학생들도 학업중단 청소년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학업중단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 즉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까지 포함한다면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실태는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동기, 학교생활 만족도, 등교거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학업중단 동기와 관련해서 교육부(1996)에서 중고생 약 2만 2천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6.1%가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중퇴 충동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최근 기독교사연합 (2001)에서 서울지역 중고생 388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또한 조아미(2001)가 강남구의 중고생 980명을 대상으로한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4.3%가 학업을 중단할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하였다(조아미. 2001). 또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2001)이 서울시내 중고생 1,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한 달 동안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해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대상의 53.5%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65.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결과의 수치는 다르지만 모두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이 매우 높고 심각함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시급한 대처방안 수립이 요청되고 있다.

학교부적응 청소년도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1999년도 서울 시교육청 산하 12개 청소년상담센터에 집계된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의 상담실적은 39%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22%, 1998년 32%와 비교할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영한, 2000). 이러한 수치 역시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의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여부도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을 추정할 수 있는 준거가 될 수 있는데, 통계청 (2002)에 따르면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중고생의 60% 이상이 학업과 진학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지

만 정작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은 41%정도에 불과해서 60%의 중고생들이 학교생활에 불만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 역시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김영한, 2000).

등교거부 행동도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을 추정할 수 있는 준거가 될 수 있는데, 1999년도 교육부 통계자료를 보면 70일 이상 무단결석한 중고생은 6만 여명이었지만, 대안교육 관계자들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종원, 2001). 이 역시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한 대처방안 수립이 요청되고 있다.

3) 학업중단과 비행 실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80%는 이미 학업중단 시점에서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95%정도는 학업중단 이후에 비행이 유지되거나 점차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장석민 외, 1988). 학업중단 청소년의 범죄율도 점차 증가하여 최근에는 10명중 3명이상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준호, 2000).

한편, 유성경과 이소래(1998)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경찰에 체포당한 경험은 응답대상의 20.0%가 있었고, 음주경험은 응답대상의 96.6%가 있었으며, 흡연경험은 응답대상의 76.6%가 있었고, 음주와 흡연을 제외한 본드, 가스, 마약과 같은 약물경험은 응답대상의 90%가 있었다. 그리고 가출경험은 응답대상의 66.6%가 있었고, 성관계 경험은 56.6%, 임신경험은 6.6%, 동거경험은 6.6%가 있었다고 응답하고 있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소년원생들인 경우 학업중단 이전보다 이후에 비행이 증가하는 반면, 나머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인 경우 오히려 학업중단 이후에 비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행이 학업중단 과는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김준호 외, 2000).

한편, 박영숙(1999)은 요인분석을 통해 학업중단 이후에 청소년 범죄행동과 관련된 가족요인은 아버지의 교육정도, 부모의 불화정도, 자율적인 양육태도 등이고, 또래요인은 친구와의 친밀도, 비행경험 친구, 처벌경험 친구 등이라고 보고하였다.

4) 학업중단과 진로 및 취업 실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고민에 대한 조사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업성적, 진학이나 취업과 같은 진로문 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이재창 등, 1981). 학업중단 청소년들인 경우 진로문제는 당면한 해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2002)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도움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안교육에 대한 안내"가 25.9%, "진로상담"이 20.5%로 나타났고, 학업중단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한 질문에는 "뚜렷이 할 일이 없음"이 21.3%, "미래의 불확실성"이 18.9%, "계획대로 안돰"이 11.8%로 나타나 이들이 진로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학업중단 이후의 계획에 대해 질문했을 때 "학업"이 54.1%, "취업"이 48.6%로 나타났지만 막상 학업중단 이후에 한 일에 대한 질문에는 "임시 일용직 취업"이 42.4%, "무직"이 22.0%으로 나타났고(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통계청 자료(2002)에 의하면 15~19세의 실업률이 10.4%로 다른 연령수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 것 등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진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부모나 교사, 또는 상담전문가에게 의논하기보다는 혼자 고 민하거나 친구에게 의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이재창 등, 1981),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사실상 진로문제에 대한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학업중단은 곧바로 사회 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5) 학업중단 사유

최근에는 가족결손, 빈곤과 같은 전통적인 학업중단 사유가 감소하는 반면, 학교부적응이나 학교 생활 및 학업에 대한 관심부족, 행동상의 문제로 인한 중도탈락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박영숙, 1999, 유성경과 이소래, 1998).

실제로 박창남(1998)에 의하면 학업중단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질병(28%) 과 기타(66%)가 가장 많았고, 중학생인 경우에는 유학이민(33%)과 학교생활 부적응(32%)이 가장 많았으며, 일반계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가정사정(34.8%)과 학교생활 부적응(29.7%)이 가장 많았고, 실업계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생활 부적응(48.1%)과 가정사정(34.7%)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진로 및 취업, 사회적응, 가정문제, 질병과 같은 문제들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조력이 필요함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박준현(2000)에 의하면 중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사유는 가출이나 비행, 장기결석,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사정 등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를 중단한 경우에는 가출이나 비행, 장기결석, 가정사정,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사유가 많았다. 기타 다른 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조력방안 수립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3.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의 원인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상담적 개입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으로 여기서는 학업 중단과 관련된 요인들 중에서 상담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원인을 기술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학업 중단 청소년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상호작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을 명확히 기술하기는 어렵다(박영숙, 1999). 여기는 원인을 개인요인, 학교요인, 가정요인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일반적인 수준에서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1) 개인적 요인

학업중단과 관련된 개인요인으로는 낮은 자아존중감(Rumberger, 1987; Kaplan et al, 1997), 장기조망 능력의 부족(박영숙, 1999), 공격적 성향(Ensmiger & Slusarcick, 1992), 질병(이재우, 1973; 박현선, 1998), 낮은 지능(이재우, 1973), 학업흥미나 학업성적 저하(박영숙, 1999)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학업중단 청소년을 포함하여 비행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자아존중감을 높임으로써 학업중단이나 비행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Kaplan, 1997). 그러나 박영숙(1999)은 요인분석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질병은 학업중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성이 학업중단과 밀접하다는 결과는 보고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학업 흥미, 성적저하 등의 요인이 학업중단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보고가 늘어나고 있다. (Barrington & Hendricks, 1989; Rumberger, 1995; 손승영, 1995; 장석민 외, 1988).

2) 가정요인

학업중단과 관련된 가정요인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나 부부갈등(김준호, 1993; 박영숙, 1999), 경제적 빈곤, 결손가정(Barrington과Hendricks, 1989; 권현진, 1998), 부모의 낮은 학력(박수민, 1997), 부모의 빈약한 교육지원(Rumberger et al, 1990), 가출(김경식, 1997) 등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정요인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중퇴사유를 보면 가족의 경제적 빈곤, 결손과 같은 전통적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은 감소하는 반면 학교부적응, 학교생활 및 학업에 대한 흥미부족이나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가 증가하고 있어 가정요인보다는 학교나 개인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준현, 2000). 최근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중산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김경식, 1997a; Franklin & Streeter, 1991; Rumberger 1987).

한편 가족결손이 학업중단과 밀접하지 않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는데, 가령 Barrington과 Hendricks(1989)는 중퇴자의 69%가 양쪽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을 많이 한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3) 학교요인

학업중단과 관련된 학교요인에는 학업동기나 흥미의 부족(박수민, 1998), 학교활동에 대한 비참여 (이종상, 1985; 권현진, 1997; 김기태외, 1996), 장기 무단결석(김경식, 1997a), 학교에 대한 소속감 부족(박영숙, 1999), 성적저하(유성경과 이소래, 1998), 징계경험(박수민, 1998; 김경식, 1997; 최인욱, 1993; 유성경과 이소래, 1998), 비행 또는 처벌경험 친구교제(김준호 외, 1993) 등이 있다.

그런데, 박영숙(1999)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관련 요인들 중에서 학업성적과 과외활동은 학업중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일반 청소년과 비교할 때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성적이 대체로 낮은 경향이 있었고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이러한 차이가 학업을 중퇴할 정도의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과외활동에 대한 참여 열의가 일반 청소년들보다는 낮지만 이것이 학업중퇴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박수민(1998)은 복교를 원하는 중퇴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관련 요인이 학업중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영숙(1999)도 개인, 가정, 학교의 세가지 요인이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비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4.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상담적 개입방안

학업중단이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가족, 또래, 학교 및 사회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담적 측면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 수립이 요청되고 있다(박영숙, 1999; 박창남, 1998; 송복 외, 1996; 오익수 외, 1995; 유성경과 이소래, 1998; 이경열, 1999; 이숙영 외, 1997).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포함한 학업중단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보다 실천적인 대처방안 수립이 요청되고 있다(김진희 외, 1995; 박창남, 1998; 성민선 외, 1998; 안종현, 1993; 유성경과 이소래, 1998; 이숙영 외, 1997; 정일 동. 1997).

여기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상담적 개입방안을 편이상 상담개입의 목적 및 목표, 상담개입의 기반조성, 직접적인 상담개입, 간접적인 상담개입 등의 순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상담개입의 목적 및 목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궁극적 목적은 이들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조력하는데 있다(권이종, 1992; 권현숙, 1999; 박창남, 1998; 송광성 외, 1993; 오익수 외, 1995). 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조력의 일차적 목적은 대안교육을 제공하는데 있다. 즉 학교 또는 대안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거나 직업현장에서 직업훈련을 받을수 있도록 조력하는데 있다(김명수와 김홍태, 1998; 문선화 외, 1998; 박수민, 1998; 이재창, 1997). 그런데, 상담 측면만을 고려할 때 개입의 목적은 학업중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 인간관계, 학업및 진로와 같은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데 있다고 할수 있다(김진희 외, 1995; 오익수외, 1995; 유성경과 이소래, 1998; 이숙영 외, 1997).

한편, 목적이 방향을 나타낸다면 목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낸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상담 개입의 목표는 ①당면한 현안문제의 해결 촉진(김진희 외, 1995; 오익수 외, 1995; 유성경과 이소래, 1998; 이숙영 외, 1997), ②진로결정 촉진(유성경과 이소래, 1998; 이재창, 1997), ③지지체제 구축 (김창원, 1994; 문선화 외, 1998; 박성수 외, 1997; 박영숙, 1999), ④사전 예방활동 촉진(김진희 외, 1995; 이숙영 외, 1997; 이종원, 2001; 장석민, 1997; 조아미, 2001) 등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당면한 현안문제의 해결을 촉진한다.

- 학업중단과 관련된 정서적 갈등을 해소한다.
- 학업중단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설명틀을 형성한다. 즉 실태와 문제점,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이해를 촉진한다.
- 학업중단과 관련된 현안문제를 정의하고, 실천적 대처방안을 수립하며, 실천에 필요한 행동을 학습한다.
- 학업중단 이후의 음주, 흡연, 가출, 폭력, 사이버 중독, 약물, 성관계, 임신, 동거와 같은 일탈행 동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

둘째, 진로결정을 촉진한다.

- **학업중단** 이후의 장 · 단기 진로계획을 수립한다
- 방통, 야학, 검정고시, 직업훈련, 진로프로그램, 기타 공식 또는 비공식적 대안교육 과정에 참 여한다.
- 학업중단 이후의 신체, 심리, 직업 및 사회적 성장을 위한 자기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지지체제를 구축한다.

- 개인상담, 집단상담, 상담교육,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 사회활동프로그램, 종교활동프로그 램과 같은 공식 또는 비공식적 학업중단 청소년 지지활동에 참여를 촉진한다.
-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동우회와 같은 공식 또는 비공식적 학업중단 청소년 지지집단에 소속을 촉진한다.
-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을 통해 가족의 당면한 문제의 해결이나 부모자녀나 부부의 갈등문제의 해결하고, 학업중단 실태와 문제점,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부모들이 바람 직한 양육태도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기능화를 촉진한다.

넷째, 사전 예방활동을 촉진한다.

-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한 평가 및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
-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평가,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현안문제 해결, 진로결정, 지지체제 구축을 촉진한다.
-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정규 대안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한다.
- 일반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업중단 실태와 문제점,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사 업을 개발 및 운영한다.
- 학업중단 청소년이 주변의 친한 친구들의 학업중단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주변 친구들에 대한 보호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2) 상담개입의 기반조성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요소는 법률 및 제도, 전문기관, 전문인력, 전문프로그램, 협력체제 구축여부 등에 달려있다(김진희 외, 1995; 박성수 외, 1997; 박창남, 1998; 이숙영 외, 1997; 표갑수, 1993). 즉 청소년 학업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운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학업중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 및 배치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전문인력에 의해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을 포함한 학교의 교사나 또 래, 가족 구성원, 사회의 청소년단체, 상담전문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3) 직접적 상담개입 방안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직접적 상담방안은 크게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평가, 상담교육, 지지체제 구축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할 수 있다(김진희 외, 1995; 오익수 외, 1995; 유성경과 이소래, 1998; 이숙영 외, 1997).

(1) 개인상담

개인상담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상담적 개입방법이다. 개인상담의 전형적인 형태는 상담실에서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상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신수단의 발달로 직접 면대 면이 아니더라도 조력이 가능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PC를 통한 채팅이나 서신상담, 전화상담 등은 접근 용이성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상담장소도 상담실에서 벗어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 가는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상담은 학업중단 청소년 개인의 당면한 현안문제의 해결, 진로결정, 지지체제 구축 등을 조력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김진희 외, 1995; 오익수 외, 1995; 이숙영 외, 1997).

(2) 집단상담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적 개입을 할 때 개인상담보다 집단상담으로 할 때 보다 유리한 측면들이 있다. 가령, 상담자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청소년들을 조력할 수 있고, 집단자체의 치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상자들에게 접근하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이형득, 1979; 이장호, 1990; 홍경자 외, 1996). 그러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대체로 학습적 성격의 집단상담에 참여율이 낮고, 실제로 참여를 하더라도 인내력이 낮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과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권현진, 1997; 김성이 외, 1996; 김진희 외, 1995; 박수민, 1998). 따라서 집단상담을 구성할때 동기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학습목표를 낮추고, 집단상담에 대한 구조화를 충분히 실시하며, 흥미를 유발하고, 긍정적 강화 등을 통해 참여동기를 유지 및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김선정, 1998; 남성호, 1998; 박창남, 1998; 안종현, 1993; 유성경과 이소래, 1998; 이재창, 1997).

일반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집단상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다. 즉 진로상담프로그램, 취업상담프로그램, 비행예방프로그램, 약물예방프로그램, 성교육프로그램, 학교 적응프로그램, 자기표현프로그램, 가치명료화프로그램, 학습기술프로그램, 자기성장프로그램, 품성계발프로그램, 인간관계훈련, 의사소통훈련 등이다(이재창, 1997; 장석민, 1997, 오익수 외, 1998; 유성경과 이소래, 1998; 김성이 외, 1996; 김진희 외, 1995).

(3) 심리검사

지능, 적성, 흥미, 성격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찰이나 면접을 통해 알아내기 어렵다. 이런 심리적 특성은 심리검사를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로는 진로와 학업, 인간관계, 이성교재, 비행 등이 있다 (구본용, 2000; 김성이 외, 1996; 김진희 외, 1995; 오익수 외, 1995; 유성경과 이소래, 1998; 이숙영 외, 1997). 만약 심리검사를 통해 지능, 적성, 흥미, 성격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이를 토대로 당면한 문제해결에 보다 효과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4) 상담교육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학교의 또래와 교사 등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구본용, 2000; 김성이 외, 1996; 김진희 외, 1995). 그들은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의 또래나 교사, 가족 구성원들에게 학업중단 실태와 문제점, 원인과 대처방안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치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학업중단 이외에도 비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음주, 흡연, 가출, 폭력, 사이버 중독, 약물, 성관계, 임신, 동거 등에 대한 정보도 예방적 차원에서 같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금순, 1997; 김선정, 1998; 유성경과 이소래, 1998; 이숙영 외, 1997).

상담교육은 부모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교육 강좌, 교사연수, 교육자료 등의 형태로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와 실태,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5) 지지체제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지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김성이 외, 1996; 김준호, 1993; 박성수 외, 1997).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구성하는 것, 상담봉사자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 대안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각종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것" 등이 있다(김금순, 1997; 김성이 외, 1996; 김진희 외, 1995; 박수민, 1998; 유성경과 이소래, 1998; 이숙영 외, 1997).

4) 간접적 상담개입 방안

학업중단 청소년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상담개입의 효과는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상담개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환경적 변화를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환경적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개입은 국가 및 사회차원의 활동, 학교차원의 활동, 가정차원의 활동으로 구분하여 기술할 수 있다(김준호, 1993; 박창남, 1998; 성민선 외, 1998; 송복 외, 1996; 오익수 외, 1995; 유성경과 이소래, 1998).

(1) 국가 및 사회차원의 활동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사회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김성이 외, 1996; 김진희 외, 1995; 박창남, 1998; 오익수 외, 1995; 이숙영 외, 1997; 표갑수, 1993).

첫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과밀화된 학교, 그리고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암기·주입식 교육방법과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제정을 늘여 과밀화된 학교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지식습득이나 진학 이상의 실생활 활용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바꾸며, 경험학습 방법을 과감하게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대안교육 또는 평생교육 육성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대안교육 또는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보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안교육 또는 평생교육 기관, 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기존의 교사양성제도와 비슷한 대안교육 및 평생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 및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해 이들에 대한 조기발견 및 예방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으로 포함시키고,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 및 배치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은 인성, 진로 및 취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방 및 경험학습 중심의 교육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학업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기 때문에 학업중단 청소년 조력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 학교의 또래 및 교사, 가족 구성원,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인식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야 하는데, 특히 학업중단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일부 부적응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개인의 학업중단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또래, 교사, 가족, 지역사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점, 학업중단이 개인적 요인보다 학교나 사회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 학업중단은 대체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제가 없어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는 점등,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요청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다섯째,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학력중심의 사회제도 및 관행 개선, 학업중단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이 요구된다.

(2) 학교차원의 활동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첫째,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예방 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생활지도 및 상담을 강화하여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이 발견되면 별도의 예방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구본용, 2000; 김준호, 1993; 김창원, 1994; 박창남, 1998; 백은순, 1990; 유성경과 이소래, 1998; 이경열, 1999; 이재창, 1997; 장석민, 1997; 정일동, 1997).

둘째, 인성교육과 진로교육 강화한다. 교육과정 내에 인성이나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을 포함한 청소년 현안문제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권현진, 1997; 유성경과 이소래, 1998; 유연승, 1998; 이경열, 1999; 이재창, 1997; 장석민, 1997; 정일동, 1997).

셋째, 교사에 대한 연수 및 지원활동을 강화한다.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연수 과정에 학업중단 내용을 포함시켜 교사들이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자문, 자료제공과 같은 지원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권현숙, 1999; 김복수, 1988; 김창원, 1994; 남성호, 1998; 박영숙, 1999; 성민선 외, 1998).

넷째, 기타 학생 징계제도를 처벌위주에서 선도위주로 개선하고, 입시 위주의 수업내용과 방식을 개선하며, 멘토링이나 또래상담을 포함한 학업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차원의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김경식, 1997a; 김복수, 1988; 김창원, 1994; 박수민, 1998; 박영숙, 1999; 유성경과 이소래, 1998).

(3) 가정차원의 **활동**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 도록 접근해야 한다.

첫째,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나 부부관계 등을 점검 및 개선할 기

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업중단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유성경과 이소래, 1998; 이숙영 외, 1997; 허철수, 1998).

둘째, 가족상담을 강화한다. 보다 집중적인 조력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위해 가족상담을 실시하여 가족구조, 경계, 질서, 역할 및 규칙, 친밀성, 의사소통 등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 나가야 한다(김성이 외, 1996; 유성경과 이소래, 1998; 이숙영 외, 1997; 허철수, 1998).

셋째, 가족지지체제를 구축한다. 가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가족기능을 대신할 지지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는 가족봉사인력 양성 및 배치하는 것이나 사회단체, 종교단체에 의뢰하는 것을 포함한다(박영숙, 1999; 박창남, 1998; 성민선 외, 1998; 오익수 외, 1995; 이경열, 1999).

5.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상담적 개입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기존의 자료를 살펴 본 결과 중고생의 학업중단 비율은 매년 2% 전후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학업중단은 당사자의 정서문제, 진로문제, 비행 및 일탈행동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가족구성원, 또래나 교사들에게도 직·간접인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의 원인은 개인, 가정환경, 학교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먼저 개인요인에는 낮은 자아존중감, 장기조망 능력의 부족, 공격적 성향, 질병, 낮은 지능, 학업흥미나 성적 저하 등이 있었다. 두 번째의 가정환경 요인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나 부부간의 갈등, 경제적 빈곤, 결손가정, 부모의 낮은 학력, 부모의 빈약한 교육지원, 가출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요인에는 학업동기나 흥미의 부족, 학교활동에 대한 비참여, 장기 무단결석, 학교에 대한 소속감 부족, 성적저하, 징계경험, 비행 또는 처벌경험 친구교제 등이 있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상담적 개입방안은 편이상 상담개입의 목적 및 목표, 상담개입의 기반조성, 직접적인 상담개입, 간접적인 상담개입 등의 순으로 탐색하였는데, 먼저 상담개입의 목적 및 목표는 당면한 현안문제의 해결 촉진, 진로결정 촉진, 지지체제 구축, 사전 예방활동 촉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 전문기관, 전문인력, 전문프로그램, 협력체제 구축과 같은 네 가지 상담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직접적 상담방안은 크게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평가, 상담교육, 지지체제 구축이 있었고, 환경적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간접적인 개입은 국가 및 사회차원의 활동, 학교

차원의 활동, 가정차원의 활동으로 구분하여 기술할 수 있었다. 첫째, 국가차원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의 개선, 대안교육 또는 평생교육 육성,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조기발견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 교육홍보 활동의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학력중심의 사회제도 및 관행 개선,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이 요구되었다. 둘째, 학교차원에서는 조기 발견 및 예방체제 구축, 인성 및 진로교육 강화, 교사연수 및 지원 강화, 선도위주의 학생징계 제도의 개선, 입시 위주의 수업내용과 방식 개선, 멘토링이나 또래상담 운영 등이 요구되었다. 셋째, 가정차원에서는 부모교육, 가족상담, 가족지지 체제 구축 등이 요구되었다.

참고 문헌

강병로(1999),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폭력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

구본용(2000), 청소년기 친구관계와 등교거부, 2000년 경기도 청소년 심포지엄 발표논문, 경기도 청소년종합상담실.

권봉희(2000), 사회적 기술훈련과 학습동기 촉진훈련이 등교거부 경향성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 석사논문.

권이종(1992), 청소년과 교육병리, 양서원.

권현숙(1999), 대안교육의 교육관과 실천사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현진(1997),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대학 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김경식(1997a), 중·고교 중퇴생 문제의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Vol 7, No1.

____(1997b), 중·고교 중퇴생과 재학생의 교내 외 생활비교를 통한 중퇴요인 분석, 교육사회학 연구, Vol 7, No3.

김계현(1995), 상담심리학, 학지사.

김금순(1997), 학교생활 부적응 여중학생의 자아존중 향상을 위한 학교 사회사업 실천, 경성대학교 정보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태 외(1996),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중퇴생의 생활과 욕구에 관한 조사, 사회복지연구, 제6집. 김명수와 김홍태(1998), 대안교육운동 탐색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논총.

김복수(1988), 학생비행과 관련된 학교환경에 대한 고찰, 조선대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정(1998), 중학교 복교생의 학교생활적응 사례연구, 한국교원대 교육사회전공 석사논문.

김성이 외(1996), 청소년비행 상담, 청소년대화의 광장.

김영지(1994), 가출청소년의 삶과 문화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숙명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화(1997),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준호(1993), 중퇴와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은(1997), 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희 외(1995), 비행청소년 상담지원정책, 청소년대화의광장.

김창원(1994), 청소년 비행의 학교환경요인과 예방대책, 한양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동석(1992),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순화를 위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성호(1998), 복교생 실태분석을 통한 학교생활적응 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선화 외(1998), 중등학교 중퇴자의 학교복귀를 위한 학교사회사업의 접근방안, 제8집 부산대학 교 사회복지 연구소.

박성수 외(1997), 인간망 개입 상담모형 개발, 청소년대화의 광장.

박수민(1998), 복교를 원하는 중퇴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사회개 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숙(1999),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학업중퇴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창남(1998),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박현선(1998), 빈곤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은순(1990), 중등학생 비행에 관련된 학교요인 연구, 한국교육, Vol 17.

성민선 외(1998),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실천모델 연구, 학교사회사업 창간 호. 부천학교사회사업학회

손승영 외(1996), 학업중퇴자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송광성 외(1993), 정학·퇴학 청소년 선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송 복 외(1996), 학업중퇴자 연구 : 실태와 대책,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안종현(1993), 중등학교 학교상담 실태와 그 실효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돈규(1997),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익수 외(1995), 청소년 상담정책 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__(1998), 비행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IV, 청소년대화의광장.

유성경과 이소래(1998), 잠재적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 연구, '98청소년상담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유연승(1998),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소현(1998),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교 재적응을 위한 기초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이경은(1998), 학교생활부적응 유형과 요인에 따른 학교사회사업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사회복 지개발연구. 통권 14호.

이소영(2000), 학교중단 청소년의 중퇴이후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숙영 외(1997), 중도탈락 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이장호와 김정희 역(1992), 현대심리치료, 중앙적성출판사.

이재창(1997), 중퇴생 예방을 위한 진로상담강화 방안, 진로교육연구, 제7호.

이종상(1985), 고등학교 학생들의 중퇴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원(2001), 등교거부의 사회학적 이해, 세미나 자료집, 강남청소년회관 학원폭력신고센터.

이형득 외(1984), 상담의 이론적 접근, 형설출판사.

장석민(1997), 중퇴생의 예방과 진로선도 대책, 진로교육 연구, 제7호.

정일동(1997), 중퇴생 예방을 위한 진로적응력 프로그램 개발 방안, 진로교육연구, 제7호.

조아미(2001), 강남구 청소년의 등교거부와 학교 중퇴현상에 관한 연구, 세미나 자료집, 강남청소 년회관 학원폭력신고센터.

최 인(1979), 학교환경과 자아개념의 관계,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표갑수(1993), 중·고등학생의 중퇴요인과 대책, 청소년학 연구, 제1권 제 1호.

허인수(1988), 고등학생 일탈행위에 대한 가정과 학교변인의 관계분석,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철수(1998), 잠재적 중퇴생의 전조행동 특성과 가정에서의 개입, 제주청소년연구, 제5집.

홍봉선 외(1998), 복교를 원하는 부산지역 중퇴청소년 부모의 욕구와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한 국아동복지학, 제6호.

황정숙(1998), 중퇴경험생과 일반재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성격특성 비교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aker J. & Sansone J.(1990), Intervention with Students At-Risk for Dropping out of School: A High School Respond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83, No 4.

Barrington B.L. & Hendricks B.(1989), Differentiating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Graduates,
Dropouts and Nongraduate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82, No6.

Ensminger M.E. & Slusarcick A.L.(1992), Paths to High School Graduation or Dropout: A Longitudinal Study of a First-Grade Cohort, Sociology of Education, Vol 65.

Franklin C(1992), Family and Induvidual Patterns in a Group of Middle-Class Dropout Youths, Social Work, Vol 37, No 4.

Franklin C. & Streeter C.L.(1992),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of High-Achieving/High-Income and Low-Achieving/Low-Income Dropout Youths:

Considerations for Treatment Programs, Social Work in Education, Vol 14, No 1.

Jenkins P.H. (1995), School Delinquence and School Commitment, Sociology of Education, Vol 68.

Kaplan D.S. (1997), Decomposing the Academic Failure-Dropout Relationship: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90, No 6.

Rumberger R.W.(1987), High School Dropouts: A Review of Issues and Evi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57, No2.

_____(1990), Family Influences on Dropout Behavior in One California High School, Sociology of Education, Vol 63.

Walker S. et al.(1998), School performance in adolescent Jamaican girls: Associations with health, social and behavioural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for dropout. Journal of Adolescence, 21.

<Abstract>

The Problem of School Dropout and Intervention of Counseling

Ko, Kee - h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intervention of counseling for school dropout. To achieve this purpose, the result of look at existent data, which a rate of school dropout in a middle and high school is approximately 2% in annually. In recently, a tendency of school dropout youth in latency is suddenly increasing. School dropout give rise to conflict with self as well as family member, peer, teacher.

A cause of problem in school dropout have three factors. It is individual, family environment, school environment. First, factors of individual is low self-esteem, deficit in long-term prospect, disposition to aggressive, disorder, low intelligence, a lowering of interest or a record in school. Two, factors of family environment is undesirable parenting of parents, conflict in rela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or couple, poverty, deficit in family, low schooling of parents, limited support of education, disappearance from home, etc. Three, factors of school environment is deficit in motivation or interest in school, nonparticipation in school activity, a long term absence without permission, deficit in a sense of belonging to school, a lowering of a record in school, experience of discipline, experience of irregularities or punishment, friendship, etc.

The intervention of counseling for school dropout have four goals. It is first, facilitate to problem solving in confronting. Two, facilitate to decision of career. Three,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ur, facilitate to prevention action.

It is necessary several foundation of counseling to achieve this goals. First, law and a system. Two, a professional institution. Three, a professional man. Four, a professional program. Five, establish a support system. A direct counseling for change in individual is individual counseling, group counseling, psychological assessment, counseling education, establish a support system. An indirect intervention of counseling for change in environment is the approach of a country and society, school, and family level.